



새로운 조경수 76

벚나무

1. 종류와 생육특성



김 사 일
전 임업연구원 산림환경부장

장미과(Roseaceae) 앵두나무아과(Prunoideae) 벚나무속(Prunus)에는 전 세계에 약 1,000여종이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유럽에도 자생종이 있지만 대부분이 동남아시아의 온대 및 난대지방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왕벚나무는 일본의 국화(國花)로 지정되어 사랑을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 제주도가 원산지로 밝혀져 학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벚나무 자생종은 왕벚나무, 울벚나무, 벚나무, 꽃벚나무, 산벚나무, 개벚지나무, 산개벚지나무, 섬벚나무, 섬개벚나무 등 9종과 변종 및 품종으로 제주벚나무, 처진개벚나무, 털개벚나무, 만첩개벚



▲ 왕벚나무 개화전경

〈표 1〉 벚나무의 종류

국 명	학 명	일 본 명	영 명
왕벚나무	<i>Prunus yedoensis</i> MATSUMURA.	ソメイヨシノ	yedoensis Cherry
제주벚나무	<i>Prunus yedoensis</i> MATSUMURA for. <i>nudiflora</i> REHDER.	エイシュウザクラ	-
산벚나무	<i>Prunus sargentii</i> REHDER.	オオヤマザクラ	Mountain Cherry
개벚나무	<i>Prunus levilleana</i> KOEHNE.	チョウセンヤマザクラ	Levilleana Cherry
처진개벚나무	<i>Prunus levilleana</i> KOEHNE var. <i>pendula</i> NAKAI	チョウセンシタレザクラ	-
털개벚나무	<i>Prunus levilleana</i> KOEHNE var. <i>pilosa</i> NAKAI	チョウセンケヤマザクラ	-
만첩개벚나무	<i>Prunus levilleana</i> KOEHNE for. <i>semiplena</i> T. LEE.	ヤエノチョウセンヤマザクラ	-
개벚지나무	<i>Prunus maackii</i> RUPR.	ウラボシザクラ	Maackii Cherry
북개벚지나무	<i>Prunus meyeri</i> REHDER.	ミヤマウラボシザクラ	-
산개벚지나무	<i>Prunus maximowiczii</i> RUPR.	ミヤマザクラ	Maximowiczii Cherry
올벚나무	<i>Prunus pendula</i> for. <i>ascendens</i> (MAX) OHWI.	エドヒカン	Ascendens Cherry
벚나무	<i>Prunus serrulata</i> var. <i>spontanea</i> (MAX) WILS.	ヤマザクラ	Oriental Cherry
가는잎벚나무	<i>Prunus serrulata</i> var. <i>densiflora</i> UYEKI.	ホソバザクラ	-
사 옥	<i>Prunus serrulata</i> var. <i>quelpaertensis</i> UYEKI.	たんナヤマザクラ	-
잔털벚나무	<i>Prunus serrulata</i> var. <i>pubescens</i> NAKAI.	ウスゲヤマザクラ	-
털벚나무	<i>Prunus serrulata</i> var. <i>tomentella</i> NAKAI.	ケヤマザクラ	-
꽃벚나무	<i>Prunus serrulata</i> var. <i>sontagiae</i> NAKAI.	ヒメヤマザクラ	Sontagiae Cherry
분홍벚나무	<i>Prunus serrulata</i> var. <i>verecunda</i> NAKAI.	카스미자クラ	Verecunda Cherry
섬 벚나무	<i>Prunus takesimensis</i> NAKAI.	타켄마자クラ	Takesimensis Cherry
섬개벚나무	<i>Prunus buergeriana</i> MIQ.	이스자クラ	-
양 벚나무	<i>Prunus avium</i> L.	세이요무미자クラ	Mazzard Cherry
신양벚나무	<i>Prunus cerasus</i> L.	스미노세이요무미자クラ	-
수양벚나무	<i>Prunus pendula</i> MAX. for. <i>pendula</i> OHWI.	신타레자クラ	Weeping Cherry
겹벚나무	<i>Prunus lannesiana</i> WILS.	사드자クラ	Donarium Cherry

나무, 북개벚나무, 가는잎개벚나무, 사옥, 잔털 벚나무, 털벚나무, 분홍벚나무 등 10종이 있으며 도입종으로는 수양벚나무, 겹벚나무, 양벚나무와 양벚나무의 변종인 신양벚나무 등 4종이 있다.

왕벚나무, 섬벚나무, 섬개벚나무, 양벚나무 등은 내한력(耐寒力)이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부 이남지역에서만 생육이 가능하고 여타 우리나라 자생종 벚나무는 내한력, 내공해력, 내염력이 강하여 전국 어디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 수종에 따라 생육적지가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양지로서 토심이 깊고 비옥 적운한 사질양토가 좋다.

2. 조경수로서의 활용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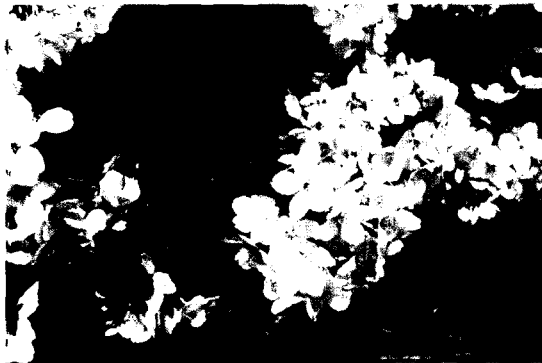
우리나라 어디로 가나 벚나무가 없는 곳이 없고 흰꽃이 활짝피어 나무를 온통 뒤덮고 있는 광경은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로 화려하고 가을에 붉게 물든 잎은 단풍으로서 손색이 없으며 꽃잎이 떨어지는 광경은 눈이 내리고 있는 설경을 방불케한다. 이와 같은 벚나무의 특성 때문에 오랫동안 가로수, 공원수, 정원수로 사랑을 받아 왔으며 우리의 생활환경과 정서생활에 크게 기여해 온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진해 군항제는 벚꽃축제로 유명하며 경남 하동군 화계면

〈표 2〉 수종별 특성

수종명	가지와 잎	꽃과 열매	분포 지역	생육 입지
왕벚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고 15m 직경 50cm까지 자라는 낙엽활엽수교목 잎은 호생하고 잎의 길이는 6~12cm로 난형 또는 도난형 잎의 표면에는 털이 없고 뒷면의 엽맥과 잎자루에 털이 있음 잎자루의 상단부에 한쌍의 밀천이 있음 잎 가장자리에 예리한 복톱니가 있고 점첨두, 원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꽃은 4월에 잎보다 먼저 피며 꽃색은 봉우리때는 연한 홍색이고 피면 백색이 됨. 화서는 짧은 산방화서로 한 개의 화서에 3~6개의 꽃이 피고 소화경에 털이 있음. 화주(花柱)에 털이 있고 꽃잎은 타원형 또는 넓은 타원형이며 꽃받침은 원통형이고 털이 있음. 열매는 둥글며 지름이 1cm내외로서 5~6월에 흑색으로 익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도 한라산이 원산지임. 일본에 유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한력이 약해서 중부이북지역에서는 월동이 곤란함. 토심이 깊고 비옥 습윤한 사질양토에서 잘 자람.
산벚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고 20m 직경 90cm까지 자라는 낙엽활엽수 교목 수간은 직립하고 수피는 암갈색이며 옆으로 벗겨짐. 잎은 타원형으로 길이 8~12cm 넓이 4~7cm, 점첨두, 아섬장저. 톱니가 사삼각형(斜三角形)임. 잎의 표면은 짙은 녹색이고 뒷면은 분백색으로 털이 없음. 잎자루는 적색으로 길이 1.5~3.0cm이며, 엽저와 잎자루의 경계부분에 한쌍의 적색밀천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꽃은 4월에 잎이 피기전에 연한 분홍색 또는 흰색으로 피. 꽃의 지름은 2.5~4cm이며 털이 없음. 화서는 산형화서로 한개의 화서에 2~3개의 꽃이 피며 총경(總梗)이 없이 소화경에 달림. 화서, 암술, 자방에 털이 없고, 꽃잎은 둥글고 끝이 오무라지며 향기가 없음. 꽃받침잎은 가장자리가 맞맞함. 열매는 5~6월에 흑색으로 익음. 정선종자 1/당 4,500개, 1kg당 6,90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표고 1,600m 이하의 해변가 수림 일본에도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한력이 강하고 내공해력도 강하기 때문에 전국어디에서나 식재가능 생육적지는 왕벚나무와 같음.
개벚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잎은 난형 또는 좁은 도난형으로 길이 5~8cm, 넓이 2.5~4.4cm로 점첨두, 원저, 톱니는 뾰족함. 처음에는 잎양면에 털이 밀생하지만 점차 없어지고 잎양면의 맥위에만 남음 잎자루의 길이는 11~18mm로 표면에 잔털이 있기도 하고 없을때도 있으며, 상부에 2~4개의 밀천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꽃은 4월에 담홍색 꽃이 잎과 같이 피며 꽃의 지름이 3.5cm내외임. 화서는 산형화서로 한개의 화서에 2~3개의 꽃이 피 화경의 길이는 2cm, 소화경의 길이는 4.3cm로 털이 없음. 포(苞)의 길이는 5~6mm로 톱니가 있으나 털은 없음. 꽃잎은 둥글고, 길이 2cm 정도로 요두(凹頭)임. 숫술의 길이는 7mm 암술의 길이는 15mm로, 암술의 길이가 숫술의 길이 2배가 넘고 암술대에 털이 없음. 열매는 둥글고 지름 3.5mm이며 5~6월에 흑색으로 익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한력이 강하고 내공해력도 강하기 때문에 전국어디에서나 식재가능 생육적지는 왕벚나무와 같음.
울벚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고 10m정도 자라는 낙엽활엽수 교목으로 수피가 회갈색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꽃은 4월에 잎보다 먼저 피며 꽃색 짙은 연한 분홍색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산꽃, 위봉산, 지리산, 보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한력이 강하고 내공해력도 강하기

수종명	가지와 잎	꽃과 열매	분포 지역	생육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은 가지는 회자색이고 광택이 나고 어린가지에 털이 있음. 잎은 넓은 피침형 또는 타원형이며 점첨두, 예저고 잎의 길이 6~10cm, 넓이 2~4cm임. 잎의 양면에 털이 있으나 차츰 없어지고 뒷면 맥위에만 남음 잎가장자리에 예리한 겹톱니가 있고 잎자루에 털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꽃의 지름은 1.5~1.8cm 화서는 산형화서로 한 개의 화서(꽃눈)에 2~5개의 꽃이 달림 소화경의 길이는 8~10mm로 털이 있음. 꽃잎은 타원상 도난형이고 길이가 1cm정도임. 열매는 둥글며 6~7월에 흑색으로 익음. 	<p>제주도 등 전국에 분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중국에도 분포 	<p>때문에 전국어디에 서나 식재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육적지는 왕벚나무와 같음.
벚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고 20m까지 자라는 낙엽활엽수 교목으로 수피가 가로로 벗겨지며 암자갈색임. 잎은 난형 또는 난상피침형이고 급한 점두, 원저 또는 넓은 예저임. 잎의 길이는 6~12cm로 양면에 털이 없음. 잎 가장자리에 잔톱니 또는 겹톱니가 있고 끝이 짧은 침형임. 잎자루의 길이는 2~3cm로 2~3개의 밀천이 있으며 털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꽃은 4~5월에 잎과 같이 피며 꽃색깔은 연분홍 또는 백색임. 화서는 산방 또는 산형화서로 한 개의 화서에 2~5개의 꽃이 달림 소화경과 꽃받침통에 털이 없고 화축과 포가 있음. 꽃받침 열편은 난형, 예두이고 암술에 털이 없음. 열매는 둥글고 6~7월에 흑색으로 익음. 정선종자 1/당 116,000개 1kg당 190,00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남, 경남, 경북, 평북의 산야 표고 100~150m 일본, 중국에도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한력이 강하고 내공해력도 강하기 때문에 전국어디에 서나 식재가능 생육적지는 왕벚나무와 같음.
섬벚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고 20m까지 자라는 낙엽활엽수교목으로 수피는 회갈색, 어린가지에 털이 없고, 동아는 타원형임. 잎은 타원형 또는 난형이며 긴 점첨두, 아심장저 또는 원저임. 잎의 길이 8~15cm, 넓이 4~9cm로 양면에 털이 없고 표면은 녹색, 뒷면은 회록색임. 잎가장자리에 톱니가 침처럼 뾰족함. 잎자루의 길이는 2.5~3.0mm고 털이 없으며 색깔은 황록색이고 끝에 밀천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꽃은 4월에 잎보다 늦게 백색으로 피고 꽃이 질 무렵에는 연한 홍색으로 변함. 꽃의 지름은 2.5cm로 향기가 있음. 화서는 화경이 없는 산형화서로 한 개의 화서에 2~5개의 꽃이 달림. 소화경의 길이는 15~18mm며 털이 없음. 꽃잎은 도난형도는 넓은 타원형이고 길이가 12~13mm며 꽃잎의 끝은 요두(凹頭)임. 꽃받침잎은 위로 젖혀지고 톱니가 없음. 열매는 구형 또는 난형이며 끝이 뾰족하거나 둥글고 6월에 자적색으로 익음. 열매의 지름은 7mm, 길이는 10~20mm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릉도 특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한력과 내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안지역이나 도서지방으로 토심이 깊고 비옥·적운한 사질양토에서 잘 자람.
왕벚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고 10m정도 잘라는 낙엽활엽수교목으로 어린가지에 털이 없음. 잎은 난형 또는 긴 난상타원형이고 길이 8~15cm, 넓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꽃은 4~5월에 잎과 거의 같이 피며 꽃색깔은 백색임. 화서는 산방화서로 한 개의 화서에 3~5개의 꽃이 달리며 소화경의 길이는 4cm정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 남·중부지방과 서남아시아에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한역이 약하기 때문에 중부이남지역에서만 식재가능. 적지는 토심이 깊

수종명	가지와 잎	꽃과 열매	분포지역	생육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5~7cm, 예침두, 원저임. • 앞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가 있고 잎표면에 뚜렷한 주름이 있으며 뒷면 엽맥위에 퍼진 털이 있음. • 잎자루의 길이는 15~50mm고, 1~2개의 밀침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매는 등글고 지름이 25mm 정도며 6~7월에 황적색으로 익고 맛이 달콤하다. • 꽃받침잎이 뒤로 젖혀지고 털이 없으며 톱니가 없음. 		고 비옥, 적절한 사질양토.
수양벚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고 10m정도 자라며 굵은 가지를 옆으로 뻗고 그 굵은 가지에서 자란 가늘은 가지가 발처럼 아래로 드리워짐 • 가지와 잎의 기타 특징은 울벚나무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과 열매의 특징은 울벚나무와 같음. • 붉은수양벚나무, 겹수양벚나무 등 새로운 품종이 보고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예품종으로 개발된 것으로 야생종은 없음. • 한국, 일본, 중국에서 재배하고 있음. 	• 왕벚나무와 같음.
겹벚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에서 원예용으로 육종한 벚나무로 수고 10m까지 자라는 낙엽활엽수교목 • 잎은 도난상 타원형으로 길이가 8~12cm정도며 점침두, 원저고 잎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음. • 잎이 필 때는 붉은 색으로 피었다 치츄 녹색으로 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은 5월에 잎이 핀 다음에 분홍색 겹꽃이 피. • 수술은 있으나 암술이 퇴화되고 없어 열매를 맺지못함. • 적색, 백색, 황색 등 다양한 품종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예품종으로 개발된 것으로 야생종은 없음. • 한국, 일본, 중국에서 재배하고 있음. 	• 내한역이 약한편이어서 중부이남지역의 양지로 토심이 깊고 비옥, 적절한 사질토양에서 잘 자람.



▲ 왕벚나무의 꽃과 화서



▲ 산벚나무 개화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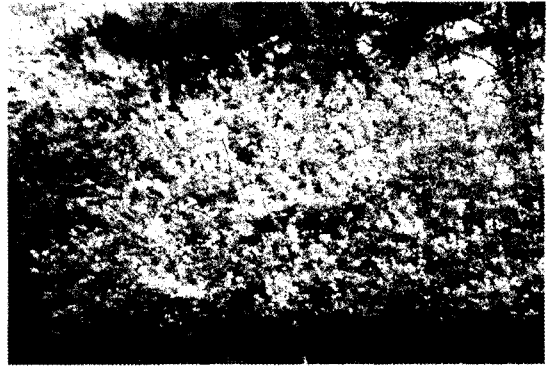
쌍계사 진입도로 10리길 벚꽃축제와 더불어 역사가 가장 오래된 축제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전주-군산 간 가로수 벚꽃, 여의도 운중제 벚꽃을 비롯 많은 곳에서 벚꽃축제가 열리고 있다. 과거의 벚나무 가로수하면 거의가 왕벚나무였으나 왕벚나무는 병충해에 약하고 빨리 쇠퇴하기 때문에 꽃의 화려함이 왕벚나무보다 다소 뒤떨어

지기는 하지만 병충해에 강하고 수명이 긴 산벚나무(왕벚나무, 수양벚나무, 겹벚나무, 양벚나무를 제외한 여타 벚나무 총칭)를 선호하고 있다.

공원이나 정원에는 여러 가지 벚꽃을 감상할 수 있게 조성하고 가로수는 여러 가지 수종의 벚나무를 혼식하지 말고 왕벚나무거리, 수양벚나무거리 등 거리별로 수종을 다르게 조성하는 것이



▲ 수양벗나무 개화전경



▲ 겹벗나무 개화전경



▲ 겹벗나무의 꽃과 화서

좋을 것이다. 그리고 양벗나무는 과일나무로 도입되었으나 조경용으로 활용한다면 꽃이 산벗나무보다 못지않게 아름답고 꽃이 지고 난 후에 붉고 굵은 아름다운 열매를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달콤한 과일로 먹을 수 있어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3. 번식 및 양묘방법

벗나무의 번식은 주로 파종, 삽목, 접목 등의 방법으로 번식한다. 왕벗나무는 종자가 영글지 않아 파종을 하여도 발아율이 낮기 때문에 산벗나무 실생묘를 대목으로 삼아 접목에 의하여 번식하고 겹벗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실생묘양성이 불가능하고 왕벗나무처럼 산벗나무 실생묘에 접목을 하던지 삽목으로 번식하며 양벗나무도 주로 삽목 및 접목으로 번식하고 기타 수

종은 종자파종에 의한 실생묘양성으로 번식한다. 산벗나무 실생묘양성은 5~6월에 자흑색으로 익은 열매를 채집하여 과육(果肉)을 주물러서 분리시켜 물로 씻어 제거하고 종자는 건조와 고온에 약하기 때문에 정선 후 곧바로 습한 모래와 혼합하여 이듬해 봄 파종 시까지 저온저장을 하여 둔다. 벗나무 종자는 싹이 빨리 트기 때문에 종자가 싹트기 전에 가능한 빨리 해토가 되면 바로 파종을 하여야 하며, m^2 당 파종량은 90cc 또는 60g(약 400개), 파종방법은 산파(散播) 또는 조파(條播), 복토는 종자지름의 두배 두께, 파종후 벗짚 등을 얇게 갈아서 건조방지, 파종 후 1개월이면 발아, 발아율 50%, m^2 당 발아기대본수 200본, 득묘본수 150본, 평균묘목의 키가 40cm정도가 된다. 그리고 5~6월에 종자를 채취하자마자 바로 파종하는 것도 무방하며 이때 복토의 두께는 봄 파종때보다 약간 두텁게 하고 서릿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듬해 봄 종자가 발아되기 전까지는 벗짚 같은 것을 다소 두텁게 갈아주는 것이 좋다.

벗나무 삽목에 있어서는 춘기삽목보다 하기늑지삽목이 활착율이 높고 하기삽목의 적기는 삽수의 2/3정도가 묻히도록 다소 깊게 삽입하는 것이 좋고 노지삽목보다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 내에서 삽목하는 것이 활착율이 월등히 높다. 접목은 아접(芽接)도 가능하지만 보통 봄에 잎이 피기 전에 절접(切接)으로 한다. 